
 교육부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7. 13.(화) 배포</p>			
보도일	2021. 7. 14.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7. 13.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		
담당과	교원양성연수과	담당자	과장	채흥준	(☎ 044-203-6369)
			서기관	최지웅	(☎ 044-203-6467)
			주무관	안병희	(☎ 044-203-6464)

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린다

- '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(시안)'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-

- ◆ **발전방안(시안)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추진**
- 학교/교실 현장을 잘 이해하도록 '교육실습 학기제' 도입
 - 1급 정교사 연수와 연계한 '융합전공' 이수로 다(多)교과 역량 함양
 - 중등 교원 양성규모를 감축하여 교원 임용시험 경쟁률 적정화

〈 대국민 토론회 실시 〉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'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(시안)' (이하 발전방안) 수립을 위하여,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.
- 작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'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'*(위원장 성기선)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'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(시안)'을 마련하였다.
- * 교육청, 교원양성기관, 교원단체, 교·사대생, 학부모, 전문가 등 24명 구성
- 앞으로 4차례의 대국민 토론회, 상시적인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을 통해, 국민 누구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열고, 미래 교원양성체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.

□ 대국민 토론회는 7월 16일(금) 15시,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4회로 진행되며, 코로나 방역과 국민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라인*으로 진행할 계획이다.

* 교육부TV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대국민 토론회 실시간 생중계 예정

○ 1차부터 3차 토론회는 발전방안(시안)의 주요 과제를 나누어 주제별 토론을 실시하고, 4차는 이를 종합하여 공청회로 진행할 예정이다.

< 차수별 대국민 토론회 논의 주제 >

1차	7.16.(금) 15:00~17:00	▸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, 교육실습 내실화 및 실습학기제 도입
2차	8.06.(금) 15:00~17:00	▸ (중등) 교원 양성경로 정비,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연계 융합전공
3차	8.20.(금) 15:00~17:00	▸ (초등) 융합전공(교과심화) 신설, 교육과정 다양성·선택권 제고
4차	9.15.(수) 15:00~17:00	▸ 종합 토론(전체 주제 대상 토론)

○ 발전방안(시안)과 토론문을 보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*(국민권익위원회 운영)을 마련하였고, 교육부 누리집** 첫 화면(배너 링크)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.

* www.epeople.go.kr/idea/index.npaid : 생각찾기 “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”

** www.moe.go.kr 교육정책소식 배너 링크

○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경우, 국민생각함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온라인 대국민 토론회에 실시간 참석,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다.

- 교육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‘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’에서 논의한 후, ‘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’에 최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.

〈 발전방안(시안) 주요 내용 〉

□ 발전방안은 작년 국가교육회의에서 발표한 ‘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협의문*’을 기초로,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다.

* (교원양성 교육과정) 교육실습 내실화 등 현장 적합성 제고, 미래 교육에 적합한 학교 교육을 위해 유연한 대응 필요 / (초등교원 양성체제) 목적형 체제에 맞게 양성 규모 관리 및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발전방안 모색 / (중등교원 양성체제) 양성 규모 축소 및 양성기관 특성화 방안 마련 등

□ 4차 산업혁명, 코로나 이후의 시대,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의 변화와 2022 개정 교육과정,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교원의 역할*은 지속적으로 변화·확대되고 있다.

* 지식 교육 + 학생 성장 지원, 교육과정 재구성, 소통·협력, 학교 혁신 등

□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이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, 미래 변화에 대해 준비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, 발전방안(시안)을 통해 다음의 기본 추진 방향을 토대로 주요 과제들을 제안하였다.

< ‘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’ 기본 추진 방향(안) >

학교 현장 이해 제고	미래 대응 전문성 확장	교원 양성규모 적정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실습 확대·강화 • 현장참여 교육과정 운영 • 학습자 이해, 적·인성 검증 • 교육청 연계·협력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(多)교과 역량 함양 • 석사수준 재교육 (1급 정교사 자격연수 연계) • 교육대학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 (종합대학과의 연계 활성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초등 수급계획 고려, 정원 관리 • 중등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사범대) 공통과목 중심 - (교직과정) 전문교과, 선택과목 등 - (교육대학원) 재교육 기능 강화

○ 첫째, 교육실습을 강화하여 ‘실습학기제’ 도입을 검토한다.

- 예비교원은 한 학기 중 특정 기간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한 학기 전체 과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, 학교·교실·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교직관을 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.

- 실습학교도 **학교 교육 계획**을 운영함에 있어, 실습을 학기 단위로 반영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기초학력 지원, 원격수업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다.
 - 도입 초기 **현장의 혼란**을 줄이고, **양성규모의 적정화**가 선행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부터 **시범운영**을 시작하여 **단계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**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.
 - 시범운영기간 동안 **교육실습 지원센터**를 설치하여, **현장에 적합한 실습 운영 모형**을 정립하고, **실습지도교원 연수** 등 지원을 통해 **실습학교, 교원양성기관, 교육청**을 연결하는 **교육실습 생태계**를 조성할 예정이다.
- 둘째, **1급 정교사 자격연수**와 연계한 **‘융합전공’** 이수 방안을 검토한다.
-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**부전공**을 **‘융합전공’**으로 명칭 변경하고, 학부에서의 **선수 과목, 직무연수 학점 인정, 1급 정교사 자격연수**를 연계하여 필요한 학점(30학점)을 이수하게 된다.
 - 이를 위해 **1급 정교사 자격연수**를 **교육대학원 1학기 과정**으로 확대하고, 교원들이 **다(多)교과 역량** 등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- 다교과 역량을 함양한 교원은 **미래 교육과정, 고교학점제, 초등 교과전담, 소규모통합학교** 등에서 열린 **교육과정 설계, 탐구심**을 바탕으로 **지속적인 전문성 계발** 등 **변화된 교원의 역할**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 - 현직교사 **재교육 과정** 운영에 대하여 **시도교육청과 교원양성기관**의 상시적인 **협업체계**를 구축하여 **긴밀하게 협조**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셋째, 임용경쟁률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중등 양성 규모를 축소*하고, 교과 특성 반영하여 교원양성기관을 특성화한다.

- * 2020년 중등 교원자격증 취득 인원 19,336명, 2021년 중등 임용시험 모집인원 4,282명
- 정기적인 양성이 필요한 **공통과목***은 사범대를 중심으로 양성하고, **전문교과, 선택과목, 신규분야** 등의 교원양성은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학과 **교직이수과정**을 중심으로 양성하고자 한다.
- * (예시)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계열 (도덕·윤리, 일반사회, 지리, 역사), 과학계열 (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과학), 음악, 미술, 체육, 기술, 가정, 정보·컴퓨터 등
- 또한, **교육대학원**은 교육청과의 연계·협력을 확대하여 1급 정교사 자격 연수, 미래 소양 함양 등 **현직교사의 재교육** 중심으로 강화한다.
- 이를 위해 **‘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(2022~2025)’**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및 중등 양성정원 축소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.

○ 넷째,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고, 다양한 전공자와의 교류를 통한 진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근 종합대학과의 연계·공동 교육과정 운영 (학점교류), 연합동아리 (인적교류) 등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.

- ‘국립대학 육성사업’과 ‘6주기 역량진단’ 등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·점검할 계획이며,
-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인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.

□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“교원양성체제는 미래 사회의 변화 속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여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의제로, 양성대학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모아야 하며, 주신 의견들을 소중하게 듣고,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【붙임】 1. 대국민 토론회 실시 계획
2.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(시안) (별첨)



□ ‘대국민 토론회’ 실시

- (목적) 발전방안 관련 현장 소통·의견수렴 통한 정책 타당성 제고
- (일정) 7~9월 중 4회 실시 (1회당 2시간)

1차	7.16.(금) 15:00~17:00	▶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, 교육실습 내실화 및 실습학기제 도입
2차	8.06.(금) 15:00~17:00	▶ (중등) 교원 양성경로 정비, 1정 연수 연계 융합전공
3차	8.20.(금) 15:00~17:00	▶ (초등) 융합전공 (교과심화) 신설, 교육과정 다양성·선택권 제고
4차	9.15.(수) 15:00~17:00	▶ 종합 토론 (전체 주제 대상 토론)

- (토론자) 매회차별 혁신위원회에서 추천한 8인* 구성
 - * (구성) 교육청, 교원단체, 예비교원, 교원양성기관, 학부모, 전문가 등
- (운영 방식)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수 인원만 현장 참여하며 유튜브 생중계 실시, 사전 질의*·댓글 반영으로 소통 확대
 - * 발제문·지정토론문 미리 공개하여 사전 질의 접수, 현장에서 이에 대한 논의
- (세부 일정)

시간	내용	비고
5'	개회 및 인사말	‘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’ 위원장
10'	발제	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(시안) 설명 (교육부)
50'	지정 토론	토론자별 8~10분 간 발언
20'	상호 토론	토론자 간 자유 토론
15'	사전 질의 반영	사전 질의 내용 소개 및 이에 대한 논의 진행
15'	유튜브 댓글 반영	유튜브 참여자의 댓글 중 선정하여 소개 및 응답
5'	마무리 및 폐회	

□ '대국민 토론회' 포스터



참가자격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

토론회 일정 및 주제

일시(유튜브 실시간)	토론회별 주제	의견제출 기간	의견제출 방법
(1차) 7.16.(금) 15시~	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, 교육실습 내실화 및 실습학기제 도입	7.13.(화) ~ 7.23.(금)	국민생각함, 유튜브 댓글, 전자우편
(2차) 8.6.(금) 15시~	(중등) 양성기관 특성화, 다교과 역량 함양(1정 연수 연계 통합전공)	8.3.(화) ~ 8.13.(금)	
(3차) 8.20.(금) 15시~	(초등) 융합전공(교과심화) 신설, 교육과정 다양성·선택권 확대	8.17.(화) ~ 8.27.(금)	
(4차) 9.15.(수) 15시~	전체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토론회(공청회)	9.10.(금) ~ 10.1.(금)	

참여(의견 제출) 방법

의견제출기간 * 내에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.

* 토론회 주간(화) ~ 그 다음주(금)까지

☑ **국민생각함 게시판** : www.epeople.go.kr/idea/index.npaid/
: 생각찾기 “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린다”

☑ **전자우편** : public_opinion@naver.com

☑ **유튜브 댓글** : 교육부TV “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린다”